

#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と編制에 대한 고찰

金大亨<sup>1)</sup> · 安相佑<sup>2)</sup>

## The study about the Author and Formation-Comparison of 《OhJangYukBuDo》 quoted by 『Euibangyoochui』

Kim Daehyung · Ahn Sangwoo

《OhJangYukBuDo五臟六腑圖》 is the Book Name which was recorded in 『Euibangyoochui醫方類聚』, and the Author had been clarified as "HoEum胡愔" in accordance with those books likely as 『New Records of Tang Dynasty新唐書』, 『History of Song Dynasty宋史』

The said "HoEum" had displayed her activity at the Age of Tang Dynasty, as a Female-Physician also a Female taoist, who retired to hermitage in Mount Taebaek. As being perceived the abstruse reasons in those scriptures named "Hwang Jung Kyung黃庭經" and "Koodo(舊圖)", she composed the book at Daejung 4th Year of King Sun, namely AD 848 named "HwangJungNaeKyungOhJangYukBuBoSaDo《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핵심어 五臟六腑圖, 醫方類聚, 胡愔, 道藏,

---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 I. 序論

《五臟六腑圖》는 『醫方類聚』의 <引用諸書><sup>3)</sup>에 인용되어 있는 서명으로 著者和 저작연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醫家和 道家관련 서적에서도 《黃庭內景五藏六府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 《黃庭五臟六腑圖》 등의 유사한 서명이 있으나 동일한 서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의 <太宗實錄 十冊 卷第二十四>에서 충주사고에 있는 《五臟六腑圖》 등<sup>4)</sup>의 서적을 춘추관에 보관하라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을 따름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史官 金尙直에게 명하여 忠州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는데, 《小兒巢氏病源候論》, 《大廣益會玉篇》, 《鬼谷子》, 《五臟六腑圖》… 등의 책이었다. …그 나머지는 春秋館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 <sup>5)</sup>

《五臟六腑圖》가 인용되어 있는 『醫方類聚』는 “세종 때 처음 완성된 후 성종대에 간행된 현존 최대의 한의방서이다. 당초 365권에 이르는 규모가 세조대 재편집 과정에서 100여권이 줄었지만 현재 전해지는 양만 해도 260여권에 달하는 거질이다. 이 책에는 200종 가량의 의서와 의학 관련서가 인용되었으며, 당, 송, 원, 명대 초기까지의 중국 의서와 고려, 조선 초기까지 고유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는 당시 최고의학 수준이 집대성된 의서이다.”<sup>6)</sup>라는 평가받고 있다. 《五臟六腑圖》는 『醫方類聚』에서 《五臟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들이 여러 곳에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어 전체적인 면모를 알아보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서명에 관련된 자료가 적은데다가 『醫方類聚』라는 방대한 서적에 인용되어 있어도 주제별로 산재되어 있는 《五臟六腑圖》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저자는 『東醫寶鑑』에서 <臞仙>, <養性書>, <養生書><sup>7)</sup>라고 출전을 밝히고 있는

3) <引用諸書>에는 黃帝內經素問, 靈樞, 運氣 五臟六腑圖 등 모두 153종의 서적을 포함하고 있다.

4) 춘추관으로 옮겨진 의학에 관련된 기타 서적으로는 小兒巢氏病源候論, 新雕保童秘要, 廣濟方, 陳郎中藥名詩, 神農本草圖, 本草要括, 王叔和脈訣口義辨誤, 黃帝素問 등이 있다.

5) 《太宗實錄 十冊 卷第二十四 12月 7日(己未)》 “命史官金尙直 取忠州史庫書冊以進小兒巢氏病源候論 大廣益會玉篇 鬼谷子 五臟六腑圖…其餘下 春秋館藏之“

6) 『醫方類聚』 편찬과 조선전기 의서, 안상우, 1999

五臟六腑導引法과 修養法이 五臟과 膽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에서 제외된 나머지 臟腑의 양생법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의 역사적 유래와 연원을 추적하던 중 『醫方類聚』의 《五臟門》에 산재되어 있는 《五臟六腑圖》라는 문헌의 일부내용임을 확인하였다.

안타깝게도 『醫方類聚』에는 저자와 서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저작시기 및 저작배경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가 경전을 모아 놓은 『道藏』<sup>8)</sup>에서 의학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던 중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등 몇 가지 문헌<sup>9)</sup>에서 『醫方類聚』에 실린 《五臟六腑圖》의 저자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들 문헌이 동종의 모본으로부터 비롯한 내용상 동일 계통의 문헌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馬繼興이 지은 《中醫文獻學》<sup>10)</sup>의 <五臟論類著作>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唐代 女道士인 胡愔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1卷<sup>11)</sup>이 현존하며 『道藏』에 수록되어 있다. 自序에 의하면 ‘舊圖’에 근거하여 撰繪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본문중에 단지 五臟神圖만 존재하고, 臟腑圖는 이미 결손되었다.<sup>12)</sup>

또한 『醫方類聚』에도 일찍이 《五臟六腑圖》一書의 佚失된 글과 그림을 수록하고 있는데 오직 편찬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 내용은 호음의 저작과 대부분이 일치하므로 다른 傳本의 하나(不同的傳本之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佚文중에 ‘處士孫思邈’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唐初이후에 撰寫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臟圖와 內臟神圖가 첨부되어 있는데 단지 肺·心·肝·脾·腎·膽 6개의 그림만 있다. 그 그림들이 여러번 베끼고 그려지는 과정에

7) 東醫寶鑑에서 肝臟導引法, 心臟導引法, 脾臟導引法, 肺臟導引法, 膽腑導引法은 <臞仙>을, 脾臟修養法, 肺臟修養法, 腎臟修養法은 <養性書>를, 肝臟修養法, 心臟修養法은 <養生書>를 출전으로 삼고 있다.

8)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의 36冊으로 이루어진 《道藏》을 참고로 한다.

9) 《五臟六腑圖》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서적으로는 道藏에서는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黃庭遁甲緣身經》, 《四時攝生圖》, 《太上養生胎息氣經》 등이 있다.

10)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1) 『道藏』에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이라는 서명은 없고, 《黃庭內景五臟六腑圖》라 되어 있다.

12)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에는 五臟神圖와 臟腑圖가 남아 있지 않으며,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는 五臟神圖와 膽腑圖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馬繼興이 언급한 《黃庭內景五臟六腑圖》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 이미 본래면목을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다.“

馬繼興은 ‘唐代 女道士인 胡愔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 1卷이 현존하며……단지 五臟神圖만 존재하고, 臟腑圖는 이미 결손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에는 臟腑圖의 그림이 남아 있지 않으며,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는 肺·心·肝·脾·腎의 五臟圖와 膽腑圖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馬繼興은 臟腑圖에 대해서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내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는 肺·心·肝·脾·腎의 五臟圖와 膽腑圖를 포함하여 모두 6개의 그림이 있고, 《四時攝生圖》<sup>13)</sup>에도 肝神·心神·肺神·腎神·脾神·膽神 6개의 그림이 있다.

또한 六府의 개념에 있어서 기존 의학과는 다르게 《黃庭內景五臟六腑圖》에서는 ‘五臟數에 膽을 가하여 六府라 이름한다’<sup>14)</sup>라고 하였기 때문에 6개를 제외한 다른 臟腑圖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醫方類聚』의 《五臟門》에서 五臟六腑에 관련된 전문을 인용하는 편제방식을 볼 때도 다른 장부를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馬繼興은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 대해서 ‘不同的傳本之一’이라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 확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여러 가지 史料와 그동안 연구되어 온 자료를 통하여 저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醫方類聚』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은 序文의 내용을 통해서 《五臟六腑圖》가 저작된 배경에 알아보고, 《五臟六腑圖》의 <肺藏圖>를 중심으로 《黃庭內景五臟六腑圖》·《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 편제 및 목차를 비교하여 『醫方類聚』에 산재되어 있는 《五臟六腑圖》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서문은 《五臟六腑圖》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편제를 비교하는데 주요 논거를 삼아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차후 의방유취 안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채집하여 원모를 복원하는데 결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며, 전통 동양의학에 있어서 臟腑論의 형성과정과 五臟六腑의 개념이 변천되어가는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3) 『道藏』 17卷

14) “以其五臟數加膽 名六府”

## II. 本論

### 제 1장 : 저자와 저술배경 및 저술시기

《五臟六腑圖》에 대하여 현재까지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道藏』에 수록된 《黃庭內景五臟六腑圖》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내용이 가장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고문헌으로 생각된다. 이들 문헌을 동일한 서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醫方類聚』와 『道藏』의 편찬시기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판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서명과 편제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道藏』의 원문에는 없는 부분을 『醫方類聚』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5)</sup>

『醫方類聚』는 세종 때(1445년) 1차 완성되었으므로,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는 충주사고에서 이관되어 春秋館에 보관되었던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sup>16)</sup> 게다가 충주사고가 고려시대의 서적을 收藏하고 있다는 주장<sup>17)</sup>에 따른다면 《五臟六腑圖》가 늦어도 조선초기나 고려말 이전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醫方類聚』《五臟六腑圖》의 <五藏圖文備記>에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현묘함을 믿지 않고 진리를 헐뜯으니 참으로 슬픈프게도 스스로 해를 당하는구나. 간혹 담력이 있는 사람도 갑자기 요괴스럽거나 非常한 靈을 만나면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부딪친다. 神이 강하고 바른 사람이면 반드시 冥神을 굴복시키니 어찌 神氣의 작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릇 叩齒는 전신의 斃氣를 없애는 것이며, 침을 양치질 하는 것은 六腑의 精을 보익한다. 이것도 또한 補하는 것이니, 직접 호흡하는 것만이 補寫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따름이다.

(夫愚夫庸士 不信玄妙 謾其眞理 深可悲哉 自取傷毀 倘有一夫有膽氣 忽愚遇妖怪非常之靈 則努目切齒 神強正者 必伏冥神也 豈非神氣之用哉 何不信之 凡叩齒爲抽一身之斃氣 漱泉爲補益六腑之精 此亦爲補也 非直嘘吸 獨稱補寫耳)”

16) 이에 대하여 金斗鍾은 《韓國醫學史, 探求堂, 1993, p.159》에서 “本圖가 앞에 記한 忠州史庫로부터 春秋館에 이장된 五臟六腑圖와 동일한 것이었으리라는 것은 그 서명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보든지 또는 本圖가 春秋館에 移藏된 太宗 12년으로부터 의방유취가 편성되기 시작한 세종 24,5년경까지 겨우 31,2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라고 말하고 있다.

17) 金斗鍾은 《韓國醫學史, 探求堂, 1993, p.151》에서 “충주사고는 오래전부터 존속되던 사고로서 거기에 수장된 서적은 대개는 고려의 판본인거나 혹은 고려시대에 수입된 宋元本이 그대로 近世朝鮮에 이관된 것일 것이므로 고려시대의 의서로서 여기에 들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孫弘烈은 앞에서 언급한 태종실록의 서적들에 대해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1988 p.154》에서 “고려시대에 간행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볼 수 있는 道藏은 正統10년(1445)에 만들어진 正統道藏과 萬曆35년(1607)에 만들어진 續道藏을 합하여 출간한 상해판도장<sup>18)</sup>을 저본으로 하는 것으로 『道藏』에는 『醫方類聚』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著者と 序文이 있어 《五臟六腑圖》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참고문헌으로 삼고자 한다.

## 1. 저자에 대하여

《五臟六腑圖》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胡愔에 대해서 『漢醫學大辭典』<sup>19)</sup>의 《醫史文獻篇》에 의하면 “唐代的 女醫家, 「胡愔方」2卷을 撰하고, 또 「黃庭內景五藏六府圖」1卷을 撰했으나 佚失됨”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黃庭內景五藏六府圖」는 佚失되지 않고 道藏에 존재하므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道藏, 史料, 中國醫籍通考 및 사전류 등의 자료를 통해서 胡愔과 그의 저작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1.1 『道藏』

『道藏』의 《黃庭內景五藏六府圖》<sup>20)</sup>序文에서는 ‘太白山見素女胡愔撰’이라 하고, 《黃庭內景五藏六府補寫圖》<sup>21)</sup>의 序文에서는 ‘太白山見素子胡愔述’로 되어 있어서 두 문헌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太白山은 일찍이 갈홍이 포박자에서 언급한 명산중의 하나로서 『道教大辭典』<sup>22)</sup>과

18) “道藏은 正統10년(1445)에 편찬된 이른바 《正統道藏》(5305권)과 萬曆 35년(1607)에 계속해서 편수된 《續道藏》(180권)을 합해서 간행한 것으로 이것을 (중화)민국시대에 영인한 것이 1,100권 가량 되는 상해판 《道藏》이다.”

“현재의 《道藏》은 明의 正統10년(1445)에 480함 5305권의 도교경전이 수집된 것이다. 이것을 正統道藏이라고 부른다. 그 후 萬曆 35년(1607)에 正一教 제 50대 天師 張國祥이 명을 받아 32함 180권의 도교 전적을 수집했는데, 이것이 續道藏이다. 오늘날 간단히 줄여서 《道藏》이라고 하면 정통도장과 속도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진본의 도장을 쉽게 이용할 수는 없지만, 중화민국 13년(1924년)부터 15년(1926년)에 걸쳐 상해 涵芬樓가 北京 白雲觀의 藏本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도관의 것을 모아 영인하고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것이 1120책으로 된 상해판 도장이다.”

《도교란 무엇인가, 崔俊植 옮김, 民族社》 p.66과 pp.74-75

1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20) 『道藏』 4冊 修真十書 卷之五十四

21) 『道藏』 6冊

22) 華夏出版社, 1995, p.241

『中華道教大辭典』<sup>23)</sup>에서 陝西省眉縣에 위치한 지명으로 표시하고 있고, 『道教醫學』<sup>24)</sup>에서는 浙江省 金華縣의 東陽이라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태백산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다.

‘見素子’ 혹은 ‘見素女’는 저자의 道號로 보이며, 胡愔이 실제 저자의 이름으로 여겨진다. 『新唐書』<sup>25)</sup>에 ‘女子胡愔黃庭內景圖一卷’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인 胡愔은 여자가 분명하다.

‘太白山見素女胡愔’ 혹은 ‘太白山見素子胡愔’이라고 표기한 것은 ‘태백산에 거주하는 見素女(子)라는 道號를 가진 女道士 胡愔’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胡愔이 여자이고, 은거지(주거지)가 太白山이며, 道號가 見素子(見素女)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史料

新唐書와 宋史등의 사료에서도 호음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新唐書에는 “여자인 호음이 黃庭內景圖 1권을 지었다”고 하여 호음이 여자임을 明記하고 있다.

《女子胡愔黃庭內景圖》一卷 『新唐書 卷五十九 志第四十九 藝文三』

宋史에는 호음의 저작으로 《胡愔黃庭內景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一卷을 말하고 있는데, 모두 『宋史 卷二百五 志第一百五十八 藝文四』에 기재되어 있다.

《胡愔黃庭內景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一卷 太白山見素女子胡愔撰<sup>26)</sup>

『宋史 卷二百五 志第一百五十八 藝文四』

## 1.3 中國醫籍通考

『中國醫籍通考』<sup>27)</sup>에서도 호음과 그의 저작에 대하여 《胡愔方》, 《補瀉內景方》, 《黃庭內景圖》, 《黃帝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圖》 등의 자료를 통해 찾아 볼 수

23)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p.1682-1683

24) 盖建民 著, 宗教文化出版社, 2001

25) 新唐書 卷五十九 志第四十九 藝文三

26)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는 太白山見素女子胡愔撰이 太白山見素子胡愔述로 되어 있다.

27) 嚴世雲 主編, 上海中醫藥學院出版社, 1993

있는데, 《胡愔方》에 대한 설명에서 호음을 女醫家로 평가하고 있으며, 저자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并序》와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의 내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書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胡愔方.

胡愔 《藝文略》二卷 佚

胡愔은 당나라 女醫家이다. 《胡愔方》二卷, 《黃庭內景五臟六腑圖》一卷과 《補瀉內景方》三卷을 撰했다. 《道藏》에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并序》一卷이 있는데,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인 것으로 의심되며, 현존한다.

② 補瀉內景方

胡愔 《宋志》三卷 佚

③ 黃庭內景圖

《藝文略》에는 《黃庭五藏內景圖》로 되어 있다. 胡愔 《新唐書》一卷 佚

④ 黃帝內景五藏六府圖

胡愔 현존하며, 현재 판본은 《道藏本》을 영인한 것임.

⑤ 黃庭內景圖

胡愔 《崇文總目》一卷 佚

《全唐書》卷 945 에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序》가 唐나라 胡愔의 저서라고 되어 있다.

1.4 기타 사전류

『中華道教大辭典』, 『道教文化辭典』, 『道教大辭典』, 『中國醫籍大辭典』 등의 도교와 의학관련 사전에서는 胡愔에 대해서 호·이름·저작 등에 대한 기초자료와 서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인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胡愔은 唐宣宗大中年의 사람이다. 女道士로서 자칭 太白山見素子라 한다’<sup>28)</sup>

28) 『中華道教大辭典』 p.106.



- ② ‘唐代의 여자로 道教理論家이다. 또 다른 이름은 見素子이다. 어려서 玄門을 사모하여 뜻을 단련하여 억지로 함이 없고, 志를 담박하게 길렀다. 각종 자료와 경전을 모아서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를 撰했으며 후대에 끼친 영향은 비교적 크다.’<sup>29)</sup>
- ③ ‘당대의 도사로 호는 見素子이다. 태백산에 은거하여 澹泊하게 삶을 살았으며 마음을 淸虛하게 하여 《黃庭經》을 보기를 좋아하였다. 양생하는 학문에 뛰어나 眞氣를 內煉하는 것을 주로 하였으며, 밖으로는 醫藥으로 보조하였다’<sup>30)</sup>
- ④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序》: ‘1권으로 당나라 胡愔(道號는 見素子이다)이 撰했다. 당나라 大中2년(848)에 책이 지어졌다. 《新唐書·藝文志》와 《宋史·藝文志》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가 후에 《道藏》에 포함되었다. 다른 명칭은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이며, 간략하게 《黃庭內景圖》라고 한다. …현존하는 판본은 《道藏》에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胡愔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五臟六腑圖》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胡愔은 의학을 공부하였기에 女醫家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도가 수련을 하였기에 女道士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太白山에서 은거하였으며 道號는 見素子 또는 見素女이다. 어려서부터 道家의 玄門을 사모하여 황정경을 보기를 좋아하였으며, 도가수련으로 하면서도 의학공부를 병행하였다.

그의 저작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한다.

29) 『道教文化辭典』江蘇古籍出版社, 1994, p.211

30) 『道教大辭典』華夏出版社, 1995 p.700

31) 『中國醫籍大辭典』,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下冊

표 1. 인용문헌별 著作書名

引用文獻	著作書名
新唐書	《女子胡愔黃庭內景圖》一卷
宋史	《胡愔黃庭內景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一卷
中國醫籍通考	《胡愔方》二卷, 《黃庭內景五臟六腑圖》一卷, 《補瀉內景方》三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并序》一卷, 《黃帝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圖》, 《黃庭五臟內景圖》

표에 있는 저작들 대부분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진 저작이 다른 서명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sup>32)</sup>이 있어서 실제 저술목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書名에 있어서 黃庭·內景·外景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이는 黃庭經의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자가 黃庭經에 대한 연구를 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五臟六腑와 內景이란 용어를 통해서 호음은 외단쪽보다는 인체 내부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의학적인 지식을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다.

## 2. 저술 배경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sup>33)</sup>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체 내부, 즉 장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고나서 修行할 것을 강조한다. 호음이 살았던 당나라때는 외단의 부작용에 의해서 天子와 지식인들까지 중독되어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폐단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sup>34)</sup> 외단이나 내단수련이나 모두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장생을 바라는 것은 같은

32) 일례로 中國醫籍通考에서 《黃庭五臟內景圖》를 《黃庭內景圖》의 異名으로 보고 있다.

33) 『道藏』 6冊

34) 《도교란 무엇인가, pp.253-255》에서는 太宗, 憲宗, 穆宗, 敬宗, 宣宗등 唐 天子들의 中毒死와 사회에 만연해진 수은중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일례로 호음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나라 15대 武宗과 16대 宣宗의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대 武宗(재위 840-846)은 열렬한 도교신자였기 때문에 당시 융성의 극에 달했던 불교에 대한 탄압을 가했는데 이 탄압사건을 그 연호인 會昌 5년(845)에 따라 會昌의 폐불이라고

바이나, 당나라때는 외단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인체 내부에 관심을 두고 수행할 것을 후학들에게 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먼저 장부를 명확히 밝히고, 다음에 수행을 설명하였다. (先明臟腑 次說修行)
- 이러한 때에 이르면 金丹을 빌리지 않더라도 玉液 琅玕이 크게 돌아 자연스럽게 神化하여 冲虛<sup>35)</sup>하게 되고 氣가 太和와 합치되어 雲漢<sup>36)</sup>에 오르게 된다.  
(至此之時 不假金丹 五液琅玕大還 自然神化冲虛 氣合太和而升雲漢)
- 이로써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수고스럽게 밖에서 구하나 실제로는 生之道를 알지 못한다.  
(是以不悟者 勞苦外求 實非知生之道)

둘째는 후학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여러 경서에 근거하여 별도로 圖式을 만들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異端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하게 되면 본래의 면목이 드러나 만물에 밝아지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 異端을 수련하고자 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그 門을 얻게 하는 것이 드물었다. 毫釐의 차이는 천리를 벗어나므로 지금 좁은 소견들을 두루 모으고 아침하는 풍문을 없애며 여러 經書에 근거하여 살펴보아 별도로 圖式을 만들었다.  
(慕修異端 斯起遂使後學之輩 罕得其門 差之毫釐 謬逾天里 今敢搜羅管見 □竭諛聞

한다. 《新唐書》 武宗本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회창 6년 3월, 壬寅日, 황제는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하였는데, 희로의 감정이 항상성을 잃어버리고 10일 동안이나 말을 못했다. 재상 李德裕 등이 알현을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궁중 안팎에서 황제의 안부를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인심은 흉흉해져만 갔다. 그러다 같은 달 23일 황제는 죽고 皇太叔 光王이 관 앞에서 즉위했다. 이때 봉어한 황제의 나이는 23세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초조라든가 기쁘고 슬픈 감정의 상실증세도 현종의 경우와 같다. 다음으로 16대 宣宗 (재위 846-859)도 금단술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집하였다. 선종은 李玄伯이 조제한 장생약을 복용하고 疽 (악성종양)가 등에 나고, 조갈과 초조와 같은 수은중독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35) 冲虛 :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공허하게 함, 허공을 헤쳐나감.

36) 雲漢 : 銀河水, 銀漢, 하늘.

按據諸經 別爲圖式)

- 뒤에 오는 공부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림을 살펴보게 하여 六情이 드러나게 하고서 經書를 열어보면 萬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庶使後來學者 按圖而六情可見 開經萬品而昭然)
- 그러한 후에 五臟이 강하고 견고하게 되면 안으로 비리고 썩은것(腥腐)을 받더라도 모든 독이 침범할 수 없으며, 밖으로 질병을 만나더라도 모든 기가 손상되어질 수가 없어서 聰明하고 純粹하며 늙음을 물리쳐 생명을 연장하여서 志高한 神仙이 되어 形이 노곤하거나 피로하지 않게 된다.  
(然後五臟堅強<sup>37)</sup>則內受腥腐 諸毒不能侵 外遭疾病諸氣不能損 聰明純粹 却老延年 志高神仙 形無困疲)

### 3. 저술시기

《五臟六腑圖》의 저술시기에 대해서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sup>38)</sup>에 ‘時大中二年戊辰歲述’로 明記되어 있다. 大中은 당나라 宣宗<sup>39)</sup>의 年號로 大中2년은 서기 848년에 해당한다. 이 문헌이 수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新唐書·藝文志인 것으로 보아 현재 그 이상 상한연대를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에서 나타난 서문의 작성시기와 부합된다.

---

37) 《黃庭內景五臟六腑圖》에는 ‘然後五臟堅強’이 ‘骨氣堅強’으로 되어 있다.

38) 『道藏』 6冊

39) 재위기간 : 847-859

## 제 2장 : 《五臟六腑圖》의 編制比較

## 1. 《五臟六腑圖》와 다른 문헌과의 편제 비교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는 《五臟門》에 나누어져 인용되어 있는데, 각 권별로 인용된 문헌을 표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醫方類聚』 《五臟門》의 卷別 인용문헌

醫方類聚		引用文獻
卷之五	五藏門 二	千金方, 五臟六腑圖, 聖惠方, 簡要濟衆方, 三因方, 簡易方
卷之六	五藏門 三	簡易方, 直指方, 儒門事親, 聖濟總錄, 永類鈴方, 金匱方, 千金方, 五臟六腑圖
卷之十二	五藏禁忌	千金方, 五臟六腑圖
	五藏導引	巢氏病源, 五臟六腑圖

《五臟六腑圖》는 『醫方類聚』의 <五藏門 二>, <五藏門 三>, <五藏禁忌>, <五藏導引> 등에서 각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알기 쉽게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윤곽이나 편제방식을 살펴보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역대 여러 의가의 의방서를 수집·분류하여 편별로 내용을 나눈 『醫方類聚』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道藏』에 실려있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sup>41)</sup>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sup>42)</sup>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서로 편제비교를 통하여 《五臟六腑圖》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목차와 내용의 흐름을 근간으로 하여 《五臟六腑圖》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肺藏圖>의 내용을 모아 재배열하여 비교하기 쉽도록 표로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0) 안상우·최환수, 『醫方類聚』 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1. 참고

41) 『道藏』 4冊

42) 『道藏』 6冊

표 3. 『醫方類聚』 《五臟六腑圖》의 체제 비교

黃庭內景五藏六府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醫方類聚』 《五臟六腑圖》
序文 肺藏圖 修養法 相肺藏病法 治病肺藏方(消風散) 導引法	序文 肺藏圖(그림) 修養法 相肺臟病法(排風散) 治肺六氣法 月禁食忌法 肺臟導引法	肺藏圖(그림) / 卷之五 <五藏門二> 相肺藏病法 / 卷之五 <五藏門二> 治肺藏病方(排風散) / 卷之六 <五藏門三> 五藏禁忌(肺藏) / 卷之十二 <五藏禁忌> 肺藏修養法 / 卷之十二 <五藏導引> 治肺藏吐納用呬法 肺藏導引法
心藏圖	心藏圖	心藏圖
肝藏圖	肝藏圖	肝藏圖
脾藏圖	脾藏圖	脾藏圖
腎藏圖	腎藏圖	腎藏圖
膽藏圖	膽藏圖	膽藏圖
五藏圖文備記 元始太玄經曰	釋音	五臟六腑圖文備記 / 卷之十二 <五藏導引>

세가지 문헌의 장부구성은 모두 五臟과 膽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부배열이 肺-心-肝-脾-腎-膽의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膽이 肝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제일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는 문헌은 『道藏』에서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sup>43)</sup>, <太上養生胎息氣經><sup>44)</sup>이고, <四氣攝生圖><sup>45)</sup>는 장부구성은 같으나 肝-心-肺-腎-脾-膽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遵生八牋』의 <四時調攝牋>에서는 장부구성은 같으나 肝-膽-心-脾-肺-腎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醫方類聚』 《五藏門》에 인용된 다른 의서의 장부구성과 장부배열에 있어서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위의 표에서 소재목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

43) 道藏 34冊

44) 道藏 18冊

45) 道藏 17冊

먼저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에는 서문이 있는데, 두 문헌이 내용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 글자가 다른 것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는 서문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서문이 없는 판본을 참고한 것이거나 의방유취가 153종의 문으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여러 방서를 나누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만 취하여 서문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sup>46)</sup> 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肺藏圖에 대해 살펴보면, 《黃庭內景五藏六府圖》에는 肺藏圖(그림)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肺藏圖의 내용에 있어서 《五臟六腑圖》는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내용상 일치하나 《五臟六腑圖》에서는 肺藏圖(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본문 내용에서 본문과 주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sup>47)</sup>

편집체계상 본문과 주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장보다 더 앞선 시기의 판본이거나, 혹은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판본을 의방유취의 편찬자들이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sup>48)49)</sup>

46) "『醫方類聚』가 단순히 인용서를 적당히 편제한 것이 아니라, 인용서와 원서 및 參校書를 대조한 후 교감작업과 내용분석에 의한 발췌·산삭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안상우, 2000 p.48)을 참고하면 의방유취에서 오장육부도가 산재되어 있거나 서문이 없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7) 일 예를 들면 《五臟六腑圖》의 “本一居上對胸有六葉 色如縞映紅 凡丈夫八十肺氣衰 魄離散也”라는 내용에서, 진하고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이 주로 되어 있는데, 《黃庭內景五藏六府圖》에서는 注로 되어 있지 않고 본문과 같이 혼재되어 있어 구별이 쉽지가 않다.

48) <『醫方類聚』의 의과학적 연구, 안상우, 2000, pp.41-44>에서 “『醫方類聚』에 인용된 천금방은 체제로보아서 북송교정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四庫全書』가 도장본의 93권 편차에 論명을 쓰고 있는 점으로 보아 元刻本이나 도장본에 들어간 북송교정본 계열의 異本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도장본 천금방과 유취에서의 인용부는 인용논제와 편차가 일치하고 있어 『醫方類聚』가 기본적으로 도장본의 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의방유취 편찬당시에도 도장에 들어간 서적들의 판본이 조선에 있었으며, 더욱이 오장육부도가 고려시대부터 있어왔던 충주사고로부터 옮겨온 것이므로 도장의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와 비교해 볼때 원문과 주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앞선 시기의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

49) <『醫方類聚』의 의과학적 연구, 안상우, 2000, p.62>에서 “『醫方類聚』총론의 내용 편집은 인용문의 선정, 발췌 및 삭제, 해당 내용의 대조를 통한 교감과 추록, 주석, 인용문의 도해화 및 요약 정리, 분류 취합등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醫方類聚』의 편저자는 인용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감하여 원저자의 원의와 논지를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五臟六腑圖》에 있어

역으로 보면 道藏의 두 문헌은 의방유취의 오장육부도를 참고해야 제대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는 肺藏圖(그림)이 삽입되어 있으며, 다른 문헌과 비교해 볼 때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sup>50)</sup>

修養法에 대해서 살펴보면 《五臟六腑圖》는 《黃庭內景五臟六府圖》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앞의 두 문헌에 비하여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서는 일부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府圖》에서 “七月八月九月”로 되어 있는 것이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서는 “秋三月”로 되어 있다.<sup>51)</sup>

相肺藏病法에 대해서 살펴보면 《五臟六腑圖》는 《黃庭內景五臟六府圖》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서는 다른 문헌의 治病肺藏方의 내용이 이곳에 있다점에서 차이가 있다.

《五臟六腑圖》의 <治肺藏病方>에 있는 처방명은 排風散으로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 일치하며, 《黃庭內景五臟六府圖》에는 消風散이라 되어 있다.<sup>52)</sup> 위의 세 처방은 약물내용과 처방용량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防風湯으로 3錢씩 먹는 것

서도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더 나은 판본을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취지로 볼때 《五臟六腑圖》라는 서명으로 된 문헌이 조선에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실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0) 『醫方類聚』의 “夫肺處七宮主信 使人方正好直 習先忠則魄安形全也……使肺氣精 養生之則傷則咳嗽舛噓也”가 생략되어 있다.

51) 《五臟六腑圖》에서 修養法에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常以七月八月九月 朔望旭旦 西面坐鳴天鼓七 飲玉津然後 瞑目正心 思台宮白氣入口七吞之 閉氣七十息 則重神強體 百邪莫之向 兵刃不能害 延年益壽 名飛仙籍 蓋所補瀉氣安息 靈魄之所致哉”

위에서 진한 글씨로 된 부분이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서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다.  
《黃庭內景五臟六府圖》에는 強體가 混體로 되어 있고, 益壽가 益筭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五臟六腑圖》를 따른다.

52) 각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肺藏圖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黃庭內景五臟六府圖》의 消風散：人參九分 玄參七分 防風八分 沙參八分 天雄八分 薯蕷十分 丹參七分 苦參八分 秦芫七分 小茱萸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排風散：人參七分 防風八分 羌活八分 沙參五分 天雄八分 薯蕷十分 丹參七分 苦參八分 秦芫八分 山茱萸八分 玄參七分

《五臟六腑圖》의 排風散：人參八分 玄參七分 防風八分 沙參五分 天雄八分 薯蕷十分 丹參七分 苦參八分 秦膠七分 山茱萸五分



은 동일하다.

《五臟六腑圖》에는 <治肺藏吐納用哂法>의 내용이 肺藏修養法에 속해있는데, 《黃庭內景五藏六府圖》에서는 治病肺藏方の 일부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에는 治肺六氣法이라고 따로 소제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導引法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가지 문헌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데, 《五臟六腑圖》에서는 肺藏導引法, 《黃庭內景五藏六府圖》에서는 導引法,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에서는 肺臟導引法으로 소제목이 되어 있다.

《五臟六腑圖》의 五藏禁忌의 내용은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에서는 月禁食忌法으로 되어 있고, 《黃庭內景五藏六府圖》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세가지 문헌의 목차를 비교해 볼때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은 <五藏圖文備記>와 <元始太玄經曰>이 차지하는 위치이다.

《五臟六腑圖》의 <五藏圖文備記>는 《五臟六腑圖》의 내용이 모두 완결되는 『醫方類聚』 卷之十二의 <五藏導引>에 속해 있으며, 五藏修養法과 膽藏修養法 다음에 위치한다.

《黃庭內景五藏六府圖》에서 膽의 <吐納法> 뒤에는 <五藏圖文備記>와 <元始太玄經曰>이 소제목으로 되어 있으면서 글의 마지막 부위에 위치한다. <五藏圖文備記>는 크게 “夫黃帝謂岐伯曰…見識之爲用也”와 “處士孫思邈…此術士之用也”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에서는 <五藏圖文備記>라는 소제목은 없고,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五藏圖文備記>에 있는 “處士孫思邈…此術士之用也”와 <元始太玄經曰>의 내용이 序文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五臟六腑圖》의 <五藏六腑圖文備記>에는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元始太玄經曰>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도장내에서도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의 편제방식에서 차이가 나고 특히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와도 내용과 편집체계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가 다른 판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道藏』의 《五臟六腑圖》는 편제 방식과 본문과 주를 구분한다는 점, 그리

고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유사한 점이 많다.

## 2. 《五臟六腑圖》와 다른 문헌의 <肺藏圖>비교

《五臟六腑圖》의 <肺藏圖>그림은 여타 醫學 이나 道家서적에서도 보기 드문데, 다른 문헌의 그림과 비교를 통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 《四時攝生圖》 등은 《五臟六腑圖》와 유사한 내용과 체계를 가지면서 <肺藏圖>그림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醫方類聚』의 영향을 받은 동의보감에서도 <肺藏圖>가 있고, <身形藏府圖>에서도 폐의 그림을 볼 수 있으므로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五臟六腑圖》의 <肺藏圖>의 그림에 관련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肺는 兌之氣와 金之精을 갖추고 있으며, 그 색은 희고 매달린 경쇠와 같은 형상이고, 그 神은 흰 짐승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肺는 魄을 生하는데, 변화하여 흰 옷에 입고 병장기를 들고 있는 키가 七寸인 옥동자가 되어 肺府를 往來한다. 또 肺에는 일곱동자와 열네명의 옥녀가 있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夫肺者 兌之氣 金之精 其色白 其狀如懸磬 其神形如白獸 肺生魄 化爲玉童長七寸 素衣持兵杖 往來於肺府也 一云 肺有七童子 十四玉女守之)

다음으로는 肺와 관련된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肺藏圖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2.1 《五臟六腑圖》의 肺藏圖(그림1)

먼저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 대해서 살펴보면, 肺의 장기명 아래 兌卦의 괘상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兌之氣’과 ‘金之精’을 세로 두 줄로 적고 있다. 肺形象<sup>53)</sup>에서 管과 같은 모양을 한 둥근기둥이 있는데, 끝에는 구멍으로 보이는 둥근 원이 있다. 이것은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의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 ‘喉’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肺와 이어져 있어서 肺로 하여금 天氣와 통하게 하는(天氣通於肺<sup>54)</sup>) 주요한 통로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靈

53) 동의보감에서 장부에 대한 모습을 설명할 때 形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54) 素問. 陰陽應象大論篇 第五

樞』55)에서는 喉嚨이라 하여 기가 위아래로 드나드는 통로라 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구멍 아래로 원기둥을 따라서 4개의 둥근 고리(環節)로 조여 맨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4는 金의 生數이고, 肺는 金之精을 가지고 있으므로 4개의 고리는 肺가 金之精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로 두개의 나뭇잎이 옆으로 갈라져 있으며, 그 사이로 5개의 작은 잎이 갈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 모두 七葉이 되므로 의방유취의 원문에서의 六葉<sup>56)</sup>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양옆으로는 구름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黃庭經·心神章第八》의 “晝夜存之自長生”에 대한 梁丘子注를 보면 ‘선경에서 말하기를 오장의 기가 변하여 오색의 구름이 되는데 정수리 위에 있으면서 一身을 덮고 있다’<sup>57)</sup>고 하였고, “五岳之雲氣彭亨”에 대하여 梁丘子注에서 ‘五臟의 氣가 五嶽의 구름이 된다’<sup>58)</sup>하였다.

또한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의 서문에서 “五臟의 氣가 맺혀서 五雲이 되고 天中으로 들어간다”<sup>59)</sup> 라고 하였다.

따라서 폐장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이 양옆으로 피어올라가 天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름모양으로 형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쪽에는 7명의 동자와 14명의 옥녀가 있으며, 그 사이로 百獸가 웅크린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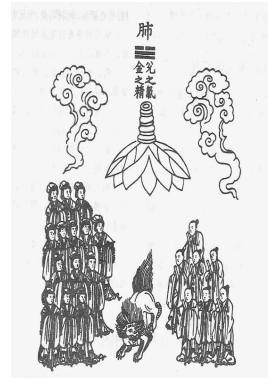


그림1.  
五臟六腑圖의 肺藏圖

55) 靈樞. 憂恚無言 第六十九 “喉嚨者, 氣之所以上下者也”

56) “本一居上 對胸 有六葉”

57) “仙經曰存五臟之氣 變爲五色雲 當頂上 覆蔭一身” 『道藏』 4冊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注.梁丘子撰> p.849

58) “五臟之氣爲五岳之雲” 『道藏』 4冊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注.梁丘子撰> p.854

59) “五臟之氣結五雲而入天中” 『道藏』 4冊

2.2 『道藏』의 肺藏圖

道藏에서는 세가지의 문헌을 통해서 肺藏圖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그림2)에서는 百獸가 네 발로 서있는 形象만 그려져 있고 肺形象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다.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그림3)에서는 “治肺當用咽 咽爲瀉 吸爲補”라는 육자결 호흡법과 간략화된 肺藏圖 및 앉아있는 百獸의 모습을 하고 있다.

《四時攝生圖》(그림4)에서는 肺神이란 명칭아래 “名皓華 字虛成”<sup>60)</sup>이라고 황정경의 글을 인용하고 있으며, 肺藏에 대한 설명에서 “여섯개의 엽과 두개의 귀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여덟 개의 葉을 가지고 있다.”<sup>61)</sup> 하였다.

다른 그림과는 다르게 百獸가 폐장의 안에 그려져 있는데, 이는 기존에 외부에 있던 神이 몸안으로 들어와 장기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黃庭經》의 梁丘子注<sup>62)</sup>에서 “해는 앞에 위치하고 달은 뒤에 위치한다. 좌측은 청룡, 우측은 백호, 앞은朱雀, 뒤는 현무를 세우면 사기를 제거하고 장생할 수 있는 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몸의 바깥에 神을 세우는 것이 內外의 邪氣를 제거하거나 장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외부에 있어야 할 神이 중간에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기와 합치되는 것으로 神에 대한 관점이 변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0) 《黃庭經 心神章 第八》에는“肺神皓華 字虛成”라고 되어 있다.

61) “六葉兩耳 共八葉” 『道藏』 17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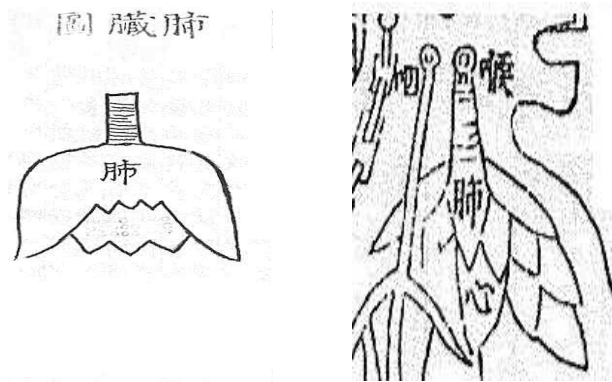
62) 『道藏』 4冊 p.849 “日居於前 月居於後 左青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卽去邪長生之道也”

## 2.3 《東醫寶鑑》의 肺藏圖

《東醫寶鑑》의 肺藏圖(그림5)는 어깨의 모양을 하고서 양옆으로 퍼진 두개의 葉안으로 3개씩 작은 葉이 중층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難經》 63)의 “六葉兩耳, 凡八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四時攝生圖》에서 六葉이 나란히 있는 것과는 달리 3개씩 중층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안에는 24절기를 의미하는 24개의 구멍이 8개씩 3줄로 되어 있다. 肺의 위에는 喉가 이어져 있으며, 다른 肺藏圖에서 보이는 구멍이나 環節은 보이지 않고 기둥에 잔주름만 그려져 있다.

<身形藏府圖>(그림6)는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것으로 폐부위만을 취한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위에 구멍이 보이며, 喉를 나타내는 원기둥에 몇 개의 환절이 감고 있다. 앞사귀가 여러 개로 퍼져 있어서 葉의 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東醫寶鑑》 五臟六腑門의 肺藏圖보다 오히려 의방유취의 폐장도와 유사하게 보인다.



이상과 같이 각 폐장도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五臟六腑圖》의 <肺藏圖>의 그림에 관련된 원문일 기준으로 볼 때 《五臟六腑圖》의 <肺藏圖>는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64), 《四時攝生圖》 65)와 《東醫寶鑑》 등에 비하여 卦象(兌卦), 肺藏圖, 좌측의 일곱 童子와 우측의 열넷 玉女 등의 그림이 원문의 내용에 가장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3) 難經42難 참고.

64) 『道藏』 34冊

65) 『道藏』 17冊

### III. 結論

이상과 같이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 대하여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과 史料등을 통해서 저자, 저술배경, 저술시기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五臟六腑圖》의 편집체계에 대하여 <肺藏圖>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五臟六腑圖》의 저자는 호음의 저작으로 알려진 문헌들과의 내용과 체제를 비교해 볼 때 胡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胡愔은 당나라 때 활동했던 女醫家이자 女道士로서 號는 見素子 또는 見素女라 한다. 黃庭經과 舊圖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宣宗 大中 4년 즉 848년(戊辰年)에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또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를 지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저작이 있다.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인체 내부, 즉 장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고나서 修行할 것을 강조하고, 도가 수련에 있어서 외부의 金丹에 의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당나라때에 이미 外丹의 부작용이 사회전반에 퍼져있는데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후학들을 위해 여러 경서에 근거하여 별도로 圖式을 만들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異端에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본래의 면목이 드러나 만물에 밝아지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五臟六腑圖》의 저작연대에 대해서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에 의하여 당나라 宣宗 大中 2年 (848年, 戊辰年)으로 본다.

《五臟六腑圖》의 장부구성은 五臟과 膽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부배열이 肺-心-肝-脾-腎-膽의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膽이 肝과 같이 붙어있지 아니하고 五臟의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黃庭內景五臟六腑圖》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부배열과 장부구성은 『醫方類聚』의 《五臟門》에 인용된 다른 의서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五臟六腑圖》의 <肺藏圖>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는 달리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헌에는 인용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편집체계상 본문과 주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장본보다 원본의 모습을 간직한 판본을 참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는 卷之五 <五藏門二>, 卷之六 <五藏門三>, 卷之十二 <五藏禁忌>, 卷之十二 <五藏導引> 등에서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道藏』의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전체적인 편제방식과 내용이 유사하나, 《五臟六腑圖》는 肺藏圖(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본문과 주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또한 『醫方類聚』의 <肺藏圖>가 卦象(兌卦), 肺藏圖, 일곱 童子와 열넷 玉女, 좌우 구름등의 그림을 볼 때 여타 <肺藏圖>에 비하여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앞으로 저자인 胡愔의 생애와 《五臟六腑圖》의 원문 및 시대적인 학술배경을 대해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道家와 醫學의 오장육부학설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 臟腑論의 형성과정과 五臟六腑의 개념이 변천되어가는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IV. 참고문헌

1.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 1997
2. 『新唐書』中華書局
3. 『宋史』中華書局
4. 『醫方類聚』, 김예몽 等撰.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人民衛生出版社, 1981
5. 『東醫寶鑑』, 허준, 남산당, 1987
6. 『醫方類聚』 편찬과 조선전기 의서, 안상우, 1999
7. 『道藏』,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4冊 《黃庭內景五藏六府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注.梁丘子撰》  
6冊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17冊 《四時攝生圖》  
32冊 《三洞道士居山修鍊科》  
34冊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
8.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篇》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9. 『道教大辭典』, 華夏出版社, 1995
10. 『中華道教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1. 『道教醫學』, 盖建民 著, 宗教文化出版社, 2001
12. 『道教文化辭典』, 江蘇古籍出版社, 1994
13.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下冊
14. 『中國醫籍通考』, 嚴世堃 主編,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93
15. 韓國醫學史, 金斗鍾, 探求堂, 1993
16.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孫弘烈, 1988
17. 도교란 무엇인가, 崔俊植 옮김, 民族社, 1990
18. 中醫文獻學, 馬繼興,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